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에픽연구
: 석곡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서종오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Jongoh Seo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EPIC FOR FAITH EDUCATION OF NEXT GENERATION : A CASE STUDY OF SEOKGOK CHURCH

Jongoh Seo

Gokseong, Korea

The church is amazing and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like 2,000 years. It's seen a lot of changes in the worl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dvanced quickly, and people now live much longer, over 100 years sometimes. It's not crazy anymore to wonder if robots will take over.

With all these changes happening,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the church is changing and what's coming next. Nowadays, churches have some problems. Some stick too closely to old ways and lose their energy. Seeing churches in Europe turn into theaters or bars shows that we need to find new ways for the next generation to believe.

We need to go beyond just talking about faith and actually experience it. Churches should help with problems in society and show people what the gospel is all about. They should connect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with what's in the Bible.

Our study isn't just dreaming about a perfect church. We want to find real ways to teach faith, especially for young people. We're looking at Leonard Sweet's EPIC method and seeing how it can work for Seokgok Church.

We think young people want to do things and be part of the community, so we're going to change how we do worship services to make them more engaging. We'll also work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use images to show what our church is about. We'll team up with other churches and use cultural centers to get more people involved.

With this research, we want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today and figure out what the church should be like for the future. Like a small light in the dark, we hope young people can lead the way.

국문초록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에픽연구
: 석곡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서종오

곡성, 대한민국

교회는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이미 2,000년의 세월을 거쳐왔으며,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의 기대수명은 이제 10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A.I가 인류를 대체할 것인지라는 질문도 더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통과 형식에 매여 생기를 잃어가고 있으며, 유럽의 교회가 극장이나 술집으로 변모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신앙의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관념과 교훈을 넘어서 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의 고통과 아픔에 직면하며, 복음의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복음과 삶을 잇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이상적인 교회를 상상하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교회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과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레너드 스윗의 EPIC 접근방식을 참고하며, 석곡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합니다.

먼저, 다음세대가 경험과 체험을 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절기예배의 형식을 변화시켜서 예배와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필요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미지를 통해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데 주력합니다. 또한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교회와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는 한 명의 아이가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목차

감사의 글	xi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 방법과 범위	5
C.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5
D. 논문의 구조	6
II. 다음세대의 이해	7
1. 다음세대의 정의	7
2. 다음세대의 특성	8
3. 다음세대와 교회의 시대적 변화	10
4. 다음세대의 한계	12
III.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의 에픽이론	20
1. 에픽이론의 정의	20
2. 에픽이론의 핵심내용	22
IV. 에픽이론을 적용한 신앙교육 운영과 실제	34
1. 석곡교회 목회현장	34
2. 에픽과 함께하는 교회 프로그램 소개	42
3. 에픽 프로그램 반응과 평가	55

V. 결론	
A. 연구의 요약	60
B. 연구의 결론	61
부록	64
참고문헌	66

표목차

<표 1> e-지방지표 곡성군

<표 2> 최근 10년간 교세통계 변동상황

<표 3> 교회 조직 및 목회 계획표

<표 4> 부활주일예배 순서

<표 5> 어린이주일 예배순서

<표 6> 경로식당 식단표

<표 7>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회의록

<표 8>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EPIC 적 요소에 대한 평가설문지

그림목차

<그림 1> 항공에서 본 처음 설립된 교회의 주변사진

<그림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16 회 회의록

<그림 3> 성전건축 시대적 변화모습

<그림 4> 전교인 성지순례 모습

<그림 5> 반찬봉사 모습

<그림 6> 봉어빵전도와 마을회관 방문의 모습

<그림 7> 교회앞 마당 잔디밭 모습, 야외영화관람

<그림 8> 교회주보색상: 녹색

<그림 9> 문화센터 활용모습: 북카페, 문화공연, 아이들 놀이공간, 전시회

<그림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자료

<그림 11> 곡성군 아동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모습

감사의 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시대의 지성과 영적 거장들과 함께 받을 내디딜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으로써, 먼저 석곡교회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우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기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경주를 완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영적 가족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의 초석을 놓을 때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견도록 함께 보행하며 보호해주신 영적 아버지인 박병식 목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항상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늘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신 고창주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대는 날씨를 분별하는 것은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깊은 학문적 토양을 풍성하게 기르는데 기여해 주신 레너드 스윗 박사님, ‘성경 한권이면 충분합니다’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성경속 이야기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순간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이끌어준 김영래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5년이라는 시간동안, 한마음으로 나를 지켜봐준 사랑하는 아내 덕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은 갚을 수 없이 크고 소중합니다. 건강하게 자란 나의 세아들 대호, 진호, 장호야! 고맙다. 너희들의 응원은 항상 힘이 되었단다.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어머니 김상순 권사님과 항상 묵묵히 응원하시고 지켜봐 주신 아버지 서재용집사님, 기쁜 맘으로

격려해 주신 장인 김성률집사님, 강기남 권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4 년 3 월 9 일

서종오

제 I 장

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다음을 기약하다는 영어표현은 “Take a Rain Check”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이를 직역해 보면 “우천 교환권을 가지다” 라는 뜻이다. 이는 과거에 야구 경기 혹은 공연 등이 비로 인해서 취소 되면, “우천 교환권(Rain Check)” 을 나누어 준 것에서 유래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미래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까?’ ‘다음을 기약해도 좋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¹ 는 바울의 편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생각하기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불편함이 없지 않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 신앙의 미래인 다가오는 세대를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 글은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지 않는 다음세대를 바라보며 어려운 시대의 현실을 분석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목회적, 신앙적 과제를 제시하려는 하나의 작은 시도이다.

최윤식의 책 『2030 대담한 도전』에 따르면, 대담한 도전을 가능케 하는

¹ 로마서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용기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에서 나온다. 미래의 기회와 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통찰해야 한다. 미래를 객관적으로 통찰해야 한다. 통찰력이 쌓여 확신이 만들어지고, 확신에서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 총체적 위기가 닥쳤지만, 미래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빠르게 결단하고 대담하게 도전한다면, 여전히 미래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²

한국교회는 이미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러한 시점에 코로나 팬데믹은 그 하강속도를 빠르고 급진적으로 다가오게 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세대가 위기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교회학교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교회학교의 감소 속도는 일반 학령인구와 대비하여 이미 2배 가량 빠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10년간 일반 학령인구는 4%만 줄어든 것에 반해, 교회학교는 무려 36%가 줄어 교회학교 초등부에서 매우 큰 위기를 보이고 있다.³고 말한다.

이에 다음세대 사역의 현실을 점검하고, 다음세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 안팎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교회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박사의 칼럼을 인용한 김영래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래에 적합한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과 잘못된 정보가 그 주된 원인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선교적 교회(mission churches) 목회적 교회(ministry churches) 현상유지적

² 최윤식, 『2030 대담한 도전』 (서울: 지식노마드, 2016), 14.

³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넘버스214,”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66/ [2024.1.9. 최종접속]

교회(maintenance churches) 박물관 교회(museum/monument churches) 등이 그것이다. 과연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사실 서구 교회는 이미 현상유지적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옮겨가는 상황에 있다. 아마도 한국 교회는 아직 선교적 교회에서 목회적 교회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다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의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21세기를 향한 교회의 개혁의 핵심은 지적 자산(intellectual capital)이 되어야 하며 혁신과 창조성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계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사용했던 것이 내일은 쓸모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기업은 불과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가지고 이윤을 창조하고 있다. 앞으로 5~7년 내에 50%이상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후기 현대사회에 있어서 변화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변화를 준비하고 변화에 참여하며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이어야 한다. 창조주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창조성에 빈곤을 체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교회는 미래를 위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얼마전 유행하던 『매직아이(Magic Eye)』라는 책이 있다. 각양각색의 점들로 채워져 있는 책의 표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 그 안에서 3차원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그 3차원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요령이 있다.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이 21세기를 준비하는 창조적 목회에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초점을 포기하라(lose focus), 통제를 포기하라(lose control). 즉 교회와 세상 즉 전체를 바라보면서 전통이나 기존의 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감격적인 미래의 교회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미래는

시간의 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매일 매 순간 다가오는 현실이다. 교회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의 앞에는 다양한 모습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미래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다. 물론 미래에 대해 이와 상반된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미래는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과 행동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흥분되는 지금, 교회는 창조적으로 변형된 목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⁴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 앞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왔다. 교회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참 생명과 진리의 풍성함이 있으며, 여전히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이고, 성경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다가오는 세대에게 비전과 방향을 창조적으로 제시한다면,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역적 위기, 세대간의 변화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교회를 연구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이 강조하는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EPIC이론을 실제 교회교육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창조적 사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⁴ 김영래, "창조적 변형, 레너드 스윗 칼럼3," 한국기독교공보(2007)

<https://m.pckworld.com/article.php?aid=36580/> [2024. 2. 3. 최종접속]

B. 연구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로는 다음세대와 관계된 서적들과 학술지를 활용하여 다음세대에 대해 연구, 분석하며 기독교 신앙 교육의 대안을 모색한다. 신앙 교육의 핵심 철학으로 세운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이론을 살펴보고 정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석곡교회 교회현장에 적용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적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소감과 인터뷰를 통해 EPIC이론을 통한 다음세대 신앙 교육의 반응과 인터뷰를 서술하고 평가하였다.

C.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학술적 연구 논문이라기보다 현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다음세대 교회교육을 세워서 시대적 변화속에 당면한 위기와 한계들을 돌파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을 살펴보고 EPIC이론과 적용을 토대로 교회교육 현장에서 직접 기획 및 실행하고, 평가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본인이 목회하는 석곡교회로 연구범위를 제한한다. 석곡교회는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전통적인 교회다. 지역적으로는 농촌에 위치한 농촌교회다. 개교회의 상황이 다양하기에, 이 프로그램이 모든 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EPIC 이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교회와 지역과 다음세대 사이의 접착점을 찾는다면, 목회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D. 논문의 구조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제 I 장에서는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과 문제제기,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등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루려 한다.

제 II 장에서는 다음세대에 대한 정의와 시대적 변화 트렌드 그리고 시대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며 다음세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다음세대에 적합한 신앙교육을 세우기 위한 핵심 이론이 되는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을 정리하였다.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서, 왜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적 요소가 필요함을 사회현상과 함께 제시 하고자 한다.

제 IV 장에서는 EPIC이론을 적용한 교회 사역과 신앙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반응과 소감을 통해 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 V 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평가, 그리고 결론과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제 II 장

다음세대의 이해

1. 다음세대의 정의

다음세대는 어떤 세대⁵인가?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아니며,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아니며, 배고픔을 경험한 세대도 아니다. 그들은 안정된 사회와 부모들의 보호속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표출하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를 살아왔다. 그러므로 기성의 잣대를 가지고 다음세대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시대는 변할 것이고, 다음 시대는 다음세대들이 주도할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다음세대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다음세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X세대, Y세대, Z세대 또는 N세대, V세대, G세대 등의 분류가 있으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는 다음세대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 각 세대마다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음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⁵ 사전에 보면 세대란 말은 “혈통적으로나 나이로 보나 약 30년 정도로 나뉘는 구분되는 그 나이층에 딸린 사람 전체”를 말한다. 이는 세대라는 것이 생물이 나서 생존을 마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10년 단위로 한 세대를 묶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7080세대, 5060세대 등이다. 과거에는 어느 사건을 위주로 하여 세대를 묶어 베이비붐 세대, 1990년대는 X세대, Y세대라 불린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회학적인 세대분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청년층 이하의 세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밀레니엄 세대’ (혹은 N세대), 즉 디지털 문명에 익숙해 있으며, 사이버 문화의 옷을 자연스럽게 입고, 현대 인터넷 기술, 소셜 네트워크를 일상화 하여 즐기는 세대를 ‘다음세대’ 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글을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이것이 다른 세대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⁶

조병호박사는 그의 책 『52과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다음세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역사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변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의 어두운 흐름을 끊기 위하여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 태어난 준비된 사람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즉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이자,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으로는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선지자 모세가 만나세대를 길러냈다면, 선지자 사무엘은 미스바세대를 길러냈습니다.”⁷ 이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는 신앙적 훈련이 필요하고,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할 다음세대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다음세대의 특성

다음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랭카스터와

⁶ 김도훈, “다음세대 신학: 사회변화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와 신학의 과제,” (서울: 장신논단, Vol 39, 2010), 146.

⁷ 조병호, 『52과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02), 116.

스틸먼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의 특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즉 ‘천년의 끝에 태어나 새천년을 이끌어갈 세대’를 분석하면서, ‘향후 20년간 기업과 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인류’라고 칭한다. 저자들은 그 세대를 움직이는 요소, 또는 트렌드를 7가지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는 부모라는 요소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가 가장 아끼는 창조물이자 소중한 피보호자다. 밀레니얼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부모는 이들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연장전에 돌입한다. 부모는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함께 해 나간다.

두 번째 요소는 권능감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칭찬과 격려 속에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성취감이 강하며 능력이 많은 세대이다. 셋째는, 의미의 추구이다. 그들은 단순히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성취하려는 세대이다. 넷째는, 삶에 있어서의 높은 성취와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며, 다섯째는, 빠른 속도 속에 성장한 컴퓨터 세대이며 멀티태스킹이⁸ 가능한 세대이다. 여섯째, 밀레니얼 세대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이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정치, 종교, 대중문화, 인생에 대해 글을 쓰고 채팅하고, 링크를 주고받거나 메신저로 대화한다.”⁹

“이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은 삶의 전부가 되었을 정도다. 그래서 그들을 상징하는 언어로 변형된 의미의 T(witter), G(oogle), I(I-phone), F(acebook)이 통용되고 있다. 랭카스터와 스틸먼이 지적하는 마지막 요소는 협력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표현함으로 ‘협력에 기반한

⁸ 한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다중작업” 또는 “다중과업화”라고도 한다.

⁹ Lynne Lancaster & David Stillman,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양유신 역 (서울: 더숲, 2010), 15-17. 김도훈, “다음세대 신학: 사회변화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와 신학의 과제,” 147. 에서 재인용

의사결정을 요구’ 하는 세대이다.”¹⁰

3. 다음세대와 교회의 시대적변화

조병호박사는 그의 책 『52과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다음세대의 신앙교육과 신앙교육의 소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 집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삿2:7-10)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만나세대 이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보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 시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결정적 원인이었다”¹¹고 말한다.

김현철은 그의 책 『메타버스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말한다. “많은 기업이 아날로그 방식의 산업을 정리하고, 디지털 경영 중심으로 회사 체질을 바꾸려 한다. 은행의 각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그 도시에서 임대료가 비싼 중심가의 1층에 자리 잡았다. 그래야 고객을 확보하여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1층의 은행들이 2층으로 이동하고 직원들도 감축한다. 고객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을 많이 이용하면서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게

¹⁰ 김도훈, “다음세대 신학: 사회변화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와 신학의 과제,” (서울: 장신논단, Vol 39, 2010), 147.

¹¹ 조병호, 『52과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02), 101-102.

되었고, 인공지능을 통해 많은 업무를 대체하면서 일어난 결과이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전 세대를 막론하고 문화와 예술, 교육,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메타버스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를 버티기만 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교회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배방식과 교회문화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광야교회에서의 회막 중심 예배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회당 중심의 예배로 변화되었다. 초대교회 시대의 가정교회는 카타콤의 예배로 변화 되었으며, 기독교 공인 이후에는 획기적인 예배 형식이 도입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에 맞게 교회와 교회교육은 달라져야 한다.”¹²

김도훈 교수는 말한다. “부정할 수 없는 변화의 트렌드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사회와의 점점 더 많은 괴리를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요한 과제는 시대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예배와 목회와 설교와 행정과 전도와 교육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³

레너드 스위트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오늘 이시대의 문화를 포스트모던 문화로 규정하고, 포스트모던 문화의 구체적 특징을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의 문화로 설명하고 있다.¹⁴

¹² 김현철, 조민철, 『메타버스 교회학교』 (서울: 꿈이 있는 미래, 2021), 37.

¹³ 김도훈, “다음세대 신학: 사회변화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와 신학의 과제,” (서울: 장신논단, Vol 39, 2010), 152.

¹⁴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6.

레너드 스위트는 현대에서 포스트모던으로 전환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기 속에서 교회는 모더니티에 불들려 재고품이 되고 낡아빠진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회는 시대에 뒤쳐진 현대적 사고와 행동유형을 바탕으로 기독교 전통을 구현하고 재현하려는 습관에 젖어 있다.¹⁵ 어쨌든 포스트모던 문화와 교회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며, 이러한 세대적 변화와 교회의 변화 트렌드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4. 다음세대의 한계

한국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로 인해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위기는 점차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¹⁶ 한국교회 또한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배형태의 변화와 저출산,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점점 복음화율 추세가 낮아지고 있다.

지방소멸론

인구감소라는 낮은 인구현상은 이미 사회 전반에, 또한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소멸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공급, 의료, 교육, 문화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한다. 마스다 히로야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이미

¹⁵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서울: 좋은씨앗, 2002), 62.

¹⁶ 김동훈, “지방소멸 위기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함의” (서울: 지역사회연구, 제30권 4호, 2022).

진행중인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인데,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일본 창성회의 산하에 ‘인구 감소 문제 검토 분과회’를 설치하고 경영자, 학자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몰두해, 2014년 5월에 독자적인 장래 추계 인구를 바탕으로 ‘소멸 가능성 도시’를 발표했다.”¹⁷

‘지방소멸(地方消滅)’이란 용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로부터 유래했는데, 그는 2014년 5월 일본창성회의에서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¹⁸에서 소멸가능 지자체를 발표하면서 ‘지방소멸론’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마스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인구유출이 지속된다면 2040년까지 인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896개 지역을 열거하는 ‘마스다 리스트’를 발표하고, 출생률이 낮은 도쿄로 집중되는 극점사회는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일 것이라는 과감한 도식을 제시한다.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 즉 ‘지방소멸’이 지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 전체의 인구 급감을 초래한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¹⁹

국회미래연구원의 「Futures Brief」 지방소멸위기대응방향 <제23-03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 지역이 2017년 12곳에서 2047년이면 157개로

¹⁷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김정환 역(서울: 미래앤, 2015), 11.

¹⁸ 日本創成會議, “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일본: 일본창성회의, 2014), <http://www.policycouncil.jp/pdf/prop03/prop03.pdf> [2024. 1. 20. 최종접속]

¹⁹ 박승현, “지방소멸과 지방창생-재후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서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Vol 16, 2017), 159.

증가될 전망을 발표했다.²⁰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은 22개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역에 속하면서 가장 위기감이 높은 인구 3만명 이하인 곡성군은 지난 3월 2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발굴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²¹

저출산, 고령화

소멸위험지역에 속하면서 가장 위기감이 높은 인구 3만명 이하인 곡성군의 2022년 출생아 수는 41명 이었다.

<표 1>²² e-지방지표 곡성군

지역별(1)	지표별(1)	지표별(2)	2021	2022	2023
전남 곡성군	인구	주민등록인구 (명)	27,535	27,060	26,905
		순이동인구 (명)	-108	57	247
		전출인구 (명)	2,802	2,330	2,078
		전입인구 (명)	2,694	2,387	2,325

²⁰ 민보경, “지방소멸위기 대응방향,” (서울: Futures Brief, 제23-03호 2023),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4327> [2024. 2. 7. 최종접속]

²¹ 김성주, “곡성군,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총력,” (서울: 프레시안 뉴스, 202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0515154280732> [2024. 2. 17. 최종접속]

²² 통계청, “e-지방지표(지역별), 곡성군(월, 분기, 반기, 년 1970.01~2024.0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2024. 2. 15. 최종접속]

		사망자수 (명)	381	502	-
		인구총조사 인구	26,781	26,454	-
		평균연령	54	55	-
		출생아수 (명)	44	41	-
		인구총조사 인구	26,781	26,454	-
		농가인구 (명)	8,610	8,693	-
		합계출산율	0.544	0.535	-
		등록외국인 현황 (명)	413	482	-

이 가운데, 본인이 목회하는 지역 곡성군 내 석곡면의 출생아 수는 작년(2023년) 한해 단 1명이 출생하였다.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이 아이가 자라서, 교회학교에 나올 때가 되면 지역의 초등학교 뿐 아니라, 교회의 교회학교 역시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지수가 올라가고 노인부양 비율이 증가함으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양의 몫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는 아직 초고령 사회 진입 전이지만,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지 오래다. 농어촌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교인의 고령화’ (80.0%)와 ‘교인 감소’ (60.1%), ‘열악한 교회재정’ (44.2%) 라는 응답이 많았다. 주일예배 참석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60대 이상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50대가 22.3%, 30대 이하가 12.5%로 심각한 역삼각형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된 농어촌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다.²³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교세통계 집계에 대한 사항이다.

① 제108회 총회에 보고하는 교세 통계는 전국 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보고한 통계입니다.

②본 통계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노회 산하 교회가 보고한 교세 통계를 노회가 합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표 2-1>²⁴ 최근 10년 교세통계 변동상황

교회학교 통계 변동 현황							
연도(항목)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2013년(99회)	17,101	21,555	58,293	50,840	59,423	68,175	157,409
2014년(100회)	17,523	23,323	57,649	51,112	57,880	64,637	152,327
2015년(101회)	17,325	22,659	55,435	48,110	55,317	62,358	146,763
2016년(102회)	16,403	22,109	52,053	46,020	54,173	56,147	134,904
2017년(103회)	19,088	21,604	50,412	45,493	51,803	56,256	126,235
2018년(104회)	14,934	20,475	48,101	44,288	50,193	54,687	119,691
2019년(105회)	15,206	19,872	45,654	43,461	48,807	52,427	115,025
2020년(106회)	12,035	16,530	40,230	38,760	43,737	47,429	109,743
2021년(107회)	10,537	14,068	34,520	34,240	39,744	43,212	100,530
2022년(108회)	10,206	13,613	32,388	33,371	38,252	42,307	97,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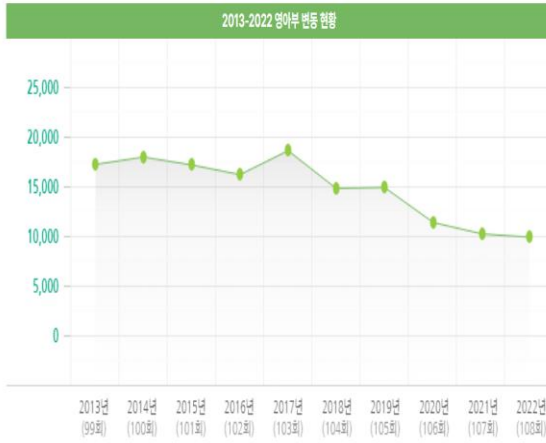
²³ 천민우,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농어촌 선교(1)” (서울: 가스펠투데이, 2023),

<https://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4> [2024. 1. 7. 최종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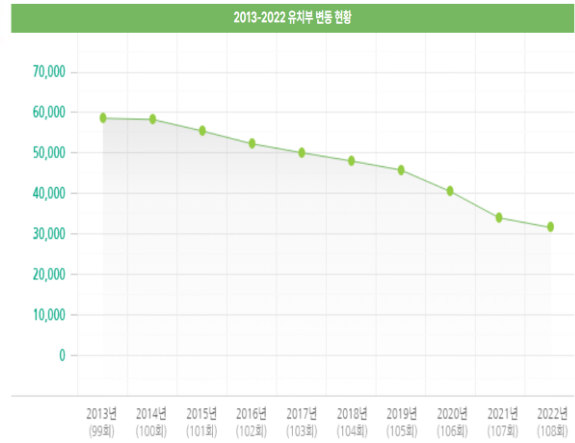
²⁴ 교세현황, “최근 10년 교세통계 변동현황,”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2022),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1_05&wr_id=1 [2024. 2. 7. 최종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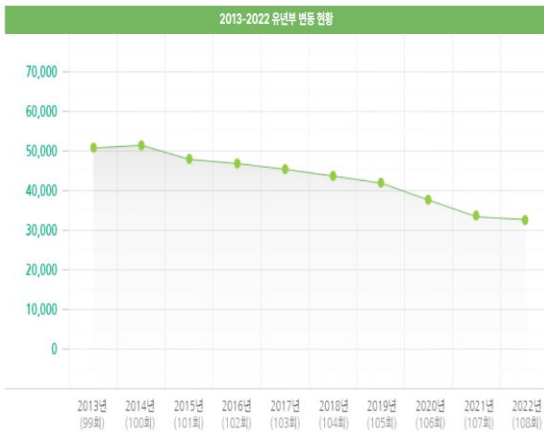
영아부 변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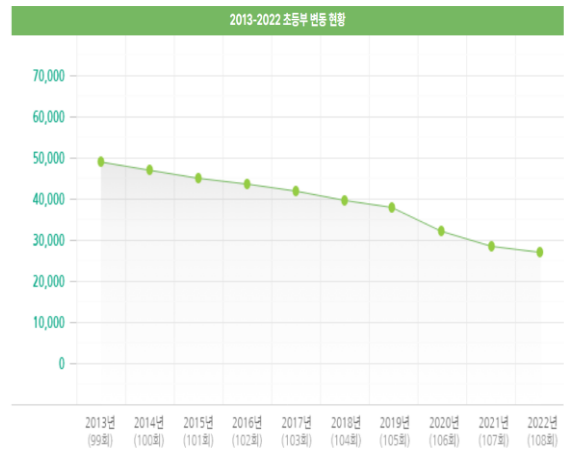
유치부 변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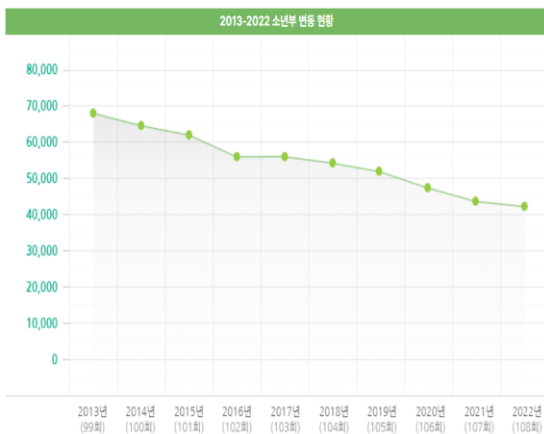
유년부 변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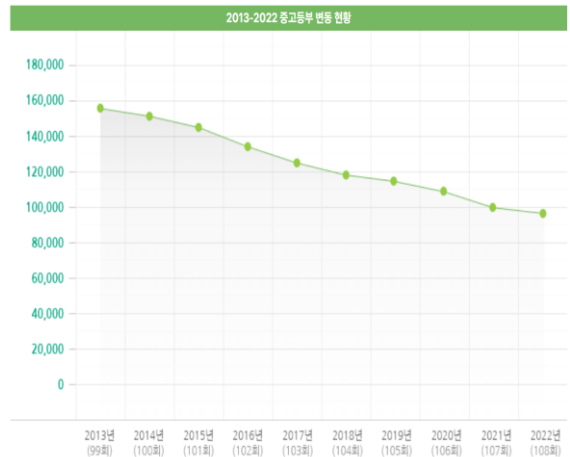
초등부 변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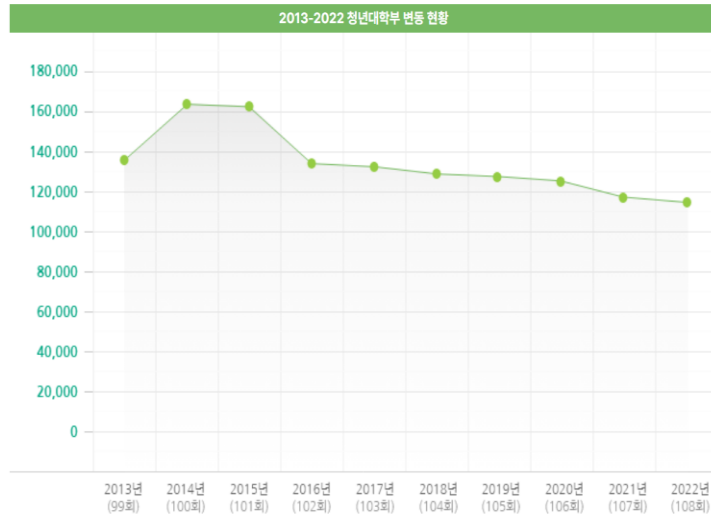
소년부 변동현황



중고등부 변동현황



청년대학부 변동현황



위의 교세통계를 통해 우리는 이전 10년동안의 한국교회 상황과 변화추이 및 한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기독교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교육부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교회의 교육부서는 1980년대부터 줄기 시작했고, 21세기 초 10년 동안에만 예장통합 측에서만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가 38만명에서 28만명으로 줄었고, 기독교 성결교회는 30%가 감소했다. 한국교회 교육부서 전체는 2005년부터 2015년경까지 제 4차 감소 국면을 통과 했고, 2016년부터는 제 5차 감소 국면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수치와 통계는 실제로 한국교회 다음세대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체감하는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매년 부서를 등반하는 아이들의 수가 눈에 보이게 줄어가고 있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²⁵

최윤식은 그의 책에서 말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래는 하나님의 거시적 계획 속에서 거부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²⁵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39-42.

이끌어 가실 미래에 우리가 스스로 동참하기를 기대하신다. 변화를 통찰하는 눈을 가진 지도자, 요셉의 지혜를 가진 기독교인,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품은 교회와 함께 만들기를 원하신다. 미래를 먼저 읽고, 미래가 당신을 쫓아오게 하라. 미래가 현실이 되기 전에 먼저 움직여라.”²⁶ 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현실에 주저 없이 않고 지혜를 모아 한 걸음 나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²⁶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112-113.

제 III 장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의 에픽(EPIC)이론

1. 에픽이론의 정의

레너드 스윗은 이제 현대성(modernity)이 지배하던 시기가 끝나고 탈 현대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포스트모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변화의 물결은 사교의 혁명적 전환과 변화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옛 시대의 교회(old world churches)는 객관적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밖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새 시대의 교회는(new world churches)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한다. 그가 제시한 EPIC 방법론은 바로 새로운 시각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⁷

그의 책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에서 스타벅스가 내놓는 ‘그란데 커피잔’이 카페인 성분이 가득한 자바음료의 향과 액체를 담아내는 판매용 상품 정도가 아닌 브랜드의 문화 포털로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있다. 스윗이 스타벅스 커피잔을 들고 음미하면서 그란데 복음, 프라푸치노 신앙, 낭만과 열정이 가득한 벤티 사이즈 인생이라는 아주 풍성한 향과 매력을 가진 EPIC이론을 추출해 내었다.

²⁷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서울: 좋은씨앗, 2002), 202.

우리가 마주해야 할 다음세대는 더 직관적이고, 더 감성적이며,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세대이다. 따라서, 레너드 스윗은 오늘날 다음세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기성세대만큼 교단, 신학, 제도, 형식 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살아있는가, 진짜인가가 중요하다. 교회가 숨 쉬고 있는가? 예배에 살아 있는 영성이 느껴지는가? 진정한 공동체가 존재하는가? 리더가 닦고 싶은 사람인가? 메시지와 삶에 연관성이 있는가? 이 교회에 오면 정말 사람이 바뀌는가? 세상에 없는 가치가 발견되고 삶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비전과 활동이 있는가? 재미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에 다음세대가 몰려왔다.”²⁸

오늘날 다음세대는 비전과 영성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새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영적인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급변하는 다음세대를 위해 새로운 차원의 신앙교육을 연구하고, 협력하면서 변화해야 한다.

“1971년 시애틀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이 되었다. 64개국 총 23,187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룬 이유는 기존의 커피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고유의 커피 맛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향을 맡는 감각적 차원에서 아주 매력적인 경험들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스윗은 스타벅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절대로 가짜나 피상성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원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거저

²⁸ 이상훈 외,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21), 38.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진정한 경험의 매력을 그 어떤 기업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은 일련의 신념이나 생활방식이 아니라, 호흡이요 맥박이요 생명이다. 스타벅스는 종교기관이 아니지만 상품과 추구의 차이를 확실히 아는 것이 틀림없다. 커피 한 잔은 상품에 불과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것은 추구다. 스타벅스는 그 차이를 알았다.”²⁹

스타벅스에서 원두를 추출하여 내린 커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고 하면, 교회가 신념이나 새로운 생활방식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닌 진정한 생명을 위해 복음을 통해 열정이 넘치게 사는 법을 교회가 제공한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스윗이 스타벅스에서 추출한 교회론을 ‘EPIC교회론’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 라는 네 가지를 핵심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에픽이론의 핵심내용

경험적인 교회(Experience Church)

레너드 스윗은 말한다. “이전 시대에는 경험 보다는 설명 혹은 객관적 인식을 신뢰해 왔다. 서구 기독교회는 이성과 관찰의 신에 의해 지배되는 모던이라는 세계속에 침몰 되었다. 이제 계시에 눈을 뜨고 경험에 굽주린 포스트모던

²⁹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7.

세계에서 잠을 깨고 있다.”³⁰ 또한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것을 찾으려고 교회에 온다. 그들이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증명을 원하거나 진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³¹

스윗은 말한다. “당신이 스타벅스의 팬이라면, 내 말에 공감할 것이다. 스타벅스에 들어서면 사방에서 화려한 빛깔들이 손님을 반긴다. 분위기 만점의 감미로운 배경음악이 쉼 하는 에스프레소 기계소리와 어우러지고, 어슴푸레한 조명이 편안하고도 도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당신의 손이 닿는 곳마다 형형색색의 커피향이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벅스는 3달러짜리 오감의 만찬을 제공한다. 스타벅스 커피회사의 경이로운 성장은, 교회가 삶의 실제적인 차원, 즉 열정과 의미의 차원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실패한 맹점과 약점을 지적해 줄 것이다.”³²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요, 이야기의 핵심도 아니다. 그러나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삶이 아니라 이론에 불과 할 것이다. 생생한 훈련이 아니요, 고사한 교리에 불과할 것이다. 진짜 경험은 개인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산 신앙의 출발점이다.”³³

신앙생활이란 관념적 언어로 설명하는 하나님도 아니라, 일상에서 실재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가장 역동성을 갖는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³⁰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서울: 좋은씨앗, 2002), 29.

³¹ Ibid, 215.

³²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7.

³³ Ibid, 68.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의 생명과 위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팀 켈러는 복음의 인격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사상 체계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바로 복음이다. 다른 종교는 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는 정반대로 말한다. 타 종교와 철학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만 신을 만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셨다고 말한다. 타종교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답’ 이다.” 고 말한다³⁴

스윗은 말한다. “진정한 기독교 체험이란 일주일 단위의 규칙적인 종교적 활동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 것이다. 세상은 그런 종교인들에게 감흥도 하지 않고 고상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인생의 굵직한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본인뿐 아니라 세상에 획기적인 복음의 표현이 될 것이다.”³⁵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는 체험이라는 요소가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자리잡고 있다.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경험에 늘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적 요소를 과소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특별히 스스로

³⁴ Timothy Keller, 『인생질문』 윤종석 역(서울: 두란노서원, 2019), 39.

³⁵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7.

경험하고 싶어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험이 폭발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 그들은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정보가 경험으로 포장되어 있기를 바란다.”³⁶

정리해보면 현 시대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바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스윗은 “세계경제가 산업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이동했으며 이것이 다시 경험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³⁷고 말한다. “21세기 주요한 현상은 주도적인 소비영역이 물질에서 벗어나 체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외식에서 e투어리즘이나 교육으로, 건강식품에서 휴가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물건을 사 모으기보다는 경험을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최고의 커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커피를 최고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그런 의미에서 경험경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최고조의 만족과 기쁨을 얻어가게 된다. 이제 소비자는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데 관심을 갖고 움직인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을 쏟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면 변화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21세기

³⁶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서울: 좋은씨앗, 2002), 65-67.

³⁷ Leonard Sweet, 『Soultsunami: Sink or Swim in New Millennium Culture』 (MI: Zondervan. Kindle Edition, 2009), 187.

³⁸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53.

교회와 교회지도자가 전해주는 일방적인 교훈이나 메시지 일변도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한다. 무엇이 좋은 예배인가? 무엇이 좋은 교회 음악인가? 를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가 아니라, 좋은 교회음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임을 말한다.

참여적인 교회(Participatory Church)

스윗은 말한다. “사람들은 참여를 원한다. 참여가 없는 예배는 최악의 예배다. 교회마다 벌어지고 있는 예배 전쟁은 에픽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배에 사용하는 음악 형식이 아니라 예배 참여도가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에픽 예배에서 회중은 예배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경험을 강조하고 다듬는데 기여하는 참여자이다. 예를 들어, 회중은 설교 작성과 디자인 행위에 점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 미래에는 회중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가 설교 형식을 결정지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특히나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서, 점점 더 증가 추세인 양방향 소통으로 인해 설교의 질이 향상된다. 강단 중심의 가르침이 주를 이루던 근대 세계에서는, 설교의 도입 부분을 잘 쓰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면 에픽 설교에서는 인상적인 도입으로 상호 작용을 만들어 내는데 공을 들인다.”³⁹

현 시대의 사람들은 ‘참여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메타버스, 놀이, 캠핑 같은 체험형 문화가 인기 있는 이유도, 그동안 TV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경험을 중시하면서, 참여에 더욱

³⁹ Ibid, 115.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개인 개인이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이다. 예전엔 TV에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출연자가 되어서 함께 참여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함께 누리는 문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교회도 참여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명적이란 말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우리 삶과 공동체의 경험 속에 구체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좋은 교회, 즉 문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⁴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방으로 흩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환자들을 치유하고, 악귀를 내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학생이나 보호자나 현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 자기들의 두 눈으로 부활의 기적, 승천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은 증인의 삶이 왜 그리 중요한지 잘 알았다. 그들의 증언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형성한 부르심은 간접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 박학다식이 아니라 행동, 잘 짜인 계획과 신중함 보다는 대담함과 뻔뻔함이었다. 1세기 제자들은 현대 교회의 사고와 행동방식과는 분명 다른 지향점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물 속 깊이 들어가 복음의 무제한적인 생명, 거저 주시는 은혜, 무한한 소망을 경험하길 원하셨다. 이 시대 교회들이 일방적, 수동적,

⁴⁰ Ibid, 112.

교훈적 가르침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며 개인 개인이 복음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⁴¹

이미지를 보여주는 교회(Image Church)

스윗은 말한다. “우리는 이미지에 목마른 이미지가 이끄는 세계에 산다. 말하자면 인생 그 자체가 영화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영화란 말씀이다. 그런데 명작 영화를 살아내지 못하고, 별다른 감화도 없고 기계적인 줄거리를 가진 B급 영화의 조연에 만족하고 있다. 안정적인 규율과 반복되는 일상을 위해 그란데 열정을 소진하고 있다.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은 안다. 이야기는 풍성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 내기 때문이다. 말에는 힘이 있다. 이미지에겐 더 큰 힘이 있다.”⁴² 이미지와 아이콘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 이미지가 형성한 체험 속에 동참하도록 강요한다.

“오늘날 교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와 은유는 잃어버렸고 지식 차원의 교리로써 전달을 시도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절대적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균형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⁴³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미지가 반드시 당신의 영적인 삶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말씀뿐 아니라 이미지의 활용이 자리 잡고 있다. 관건은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다른 것과

⁴¹ Ibid, 130-131.

⁴² Ibid, 137-138.

⁴³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서울: 좋은씨앗, 2002), 138.

신앙을 혼동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예배 의식도, 교리도, 종교도, 이상한 영성도 아니다. 한 인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체험이다. 그리고 이 모두는 생생한 이미지로 인해 가능한 일이다.”⁴⁴

“이전 시대가 언어로 기초된 문화라고 한다면,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미지를 추구하고 창출하는 문화이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중심에 둔 지적 신앙을 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모호하며, 신비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여겨져 무시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에게 이야기 전달자의 역할을 박탈당한 후 교회는 이제 이야기와 은유가 영성의 중심에 놓이게 된 세계로 진입하게 되었다.”⁴⁵

“사실상 기독교는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며, 그 중 가장 위대한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였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풍성한 이미지를 중요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말보다는 이미지가 이야기하는 시각 문화 속에 산다. 광고업자들은 수십 억 달러의 돈을 들여 말이 아닌 이미지를 퍼부어 댄다. 기독교는 이미지로 시작해서 이미지로 끝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로고스의 로고다. 태초에 로고가 된 로고스가 계셨다. 종말에는 우리 역시 로고스가 될 것이고,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 빼닮게 될 것이다. 이미지는 말 보다 훨씬 더 잠재적인 구속력이 있다.”⁴⁶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성경의 말씀을 다양하고 풍성한 이미지를 통해 어떤 이미지가 진리와 공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여 주고 진리 안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⁴⁴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49.

⁴⁵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서울: 좋은씨앗, 2002), 86.

⁴⁶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53.

연결적인 교회(Connection Church)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의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개인 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영래 교수는 말한다. “사실상 근대시대는 이성에 근거한 합리성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행동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리에 대한 명제적 접근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지적, 사회적 상황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이했다. 특별히 오늘날의 정보혁명은 그 어느 때보다 관계적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⁴⁷

이러한 변화에 스윗은 “세계가 점점 더 연결되면 될수록 기독교가 명제적 무력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우리는 명제적 사역(proposition business)에서 물러서고 사람을 위한 사역(people business)에 몰두해야 한다. 이제는 신앙의 관계적 근육을 느슨하게 하고 ‘유일한 연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적 연구에 기계실이 되어 관계로서의 개인이 배의 선원이 되는 관계적 신학을 세워야 한다.”⁴⁸고 말한다.

김영래 교수는 『미래 교육 목회』라는 책에서 이러한 관계의 문화 속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레너드 스윗의 『트위터 신학』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들어 말한다. “친교, 140자로 된 문장,

⁴⁷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서울: 땅에쓰신글씨, 2010), 57.

⁴⁸ Leonard Sweet, 『So Beautiful』, 99.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57. 에서 재인용.

외양, 글로벌 광장, 사회적 고독을 다루면서, ‘관계’는 미래사회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목회에 있어서도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⁴⁹

레너드 스위트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찾아 헤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은 바로 수천 가지의 의미를 지닌 한 단어, 소속감(connectedness)이다. 모든 사람이 관계를 찾아 헤맨다는 말이 의심스러우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인 인터넷에 한번 접속해 보라.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사람들이 부가적인 테크놀로지나 포르노 사이트에 빠져서 라기보다는 인터넷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가상 공동체이지만, 단절된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에 틀림없다.”⁵⁰

“명심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 헤매고 있다. 스타벅스를 찾는 실제 고객의 30퍼센트만이 탁자와 소파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탁자와 소파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고객들이 다시 스타벅스를 찾는 것이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저기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저것들은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거니까.’ 스타벅스는 본질적으로 관계 사업이다.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라 관계를 판다. 실제로, 무언가를 파는 누군가는 더 이상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경험을 파는 셈이다. 예수님은 커피를 마시지는 않으셨지만, 관계의 대가셨다. 그분 이야말로 독보적인 관계의 대가셨다. 우리는 에픽 인생이 그런데 열정의 영성-풍성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하는-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⁴⁹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서울: 땅에쓰신글씨, 2010), 58-64.

⁵⁰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71-172.

살펴보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 그와 동시에 인간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⁵¹

선한용 교수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 맺음에 대해 초대교부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ad te)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in te)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고백록의 전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의 전 사상을 대표한 문구라고 볼 수 있다. ‘당신을 향해서(ad te)’란 표현은 인간의 본래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a te 혹은 abs te(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분리)이다.”⁵² 어거스틴은 이 문장에서 참다운 안식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의 순례는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서(in te)’ 안식하는 것, 곧 참된 관계 속에서만 안식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레너드 스윗은 그의 책에서, 관계에 대한 네 가지 회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주의 창조자가 인간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 ‘자아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 성경에 나타난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사 특별하게 만드신 몸과 정신과 영혼을 연결시키는 관계적 명령이다. ‘타인과의 관계 회복’ -새 언약은 결속과 다리놓음을 포괄한다. 교회는 다리 놓는

⁵¹ Ibid, 183.

⁵² 선한용, 『성어거스틴의 고백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45.

사역(바울로 상징되는)과 결속 사역(베드로로 상징되는)에 모두 정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리를 불태워 배수의 진을 치기보다는 사람들을 결속하는 대화로 다리를 놓는 이들이다. ‘창조 세계와의 관계 회복’ - 성서의 히브리어에는 자연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다. 자연은 우리와 동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은 또 우리의 일부다. 관계 회복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돌보는 기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⁵³

레너드 스위트는 에픽 이론과 인생에 대해 이렇게 결말 짓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에픽 인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에는 경험과 참여와 이미지와 관계가 있다. 믿음의 삶, 온전히 믿음의 삶으로 인정된 삶은 의미 있는 경험, 의미 있는 경험에의 온전한 참여, 그 경험들을 둘러싼 풍부한 이미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아와 창조세계와의 깊이 있는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 네 가지 에픽 요소는 서로 엮여서 그란데 열정, 즉 모든 인류가 갈급 해 하는 그런 인생을 낳는다. 어서 가서 당신을 위해 그리고 친구를 위해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사라. 스타벅스 또는 당신이 즐겨 찾는 장소에서 만나 그곳의 정경과 소리와 맛과 향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에픽 인생의 따뜻함과 관계를 누려라. 나는 블랙 아이를 주문하려고 한다. 당신의 주문은 당신 몫으로 남기겠다.”⁵⁴

⁵³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93-204.

⁵⁴ Ibid, 205.

제 IV 장

EPIC이론을 적용한 신앙교육 운영과 실제

1. 석곡교회 목회현장

프로젝트는 필자가 섬기고 있는 석곡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석곡교회는 전남 곡성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의 교회이다. 교회 역사의 자료는 본 교회 110년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⁵⁵

성전변천 과정으로 보는 역사

<그림1. 항공에서 본 처음 설립된 교회의 주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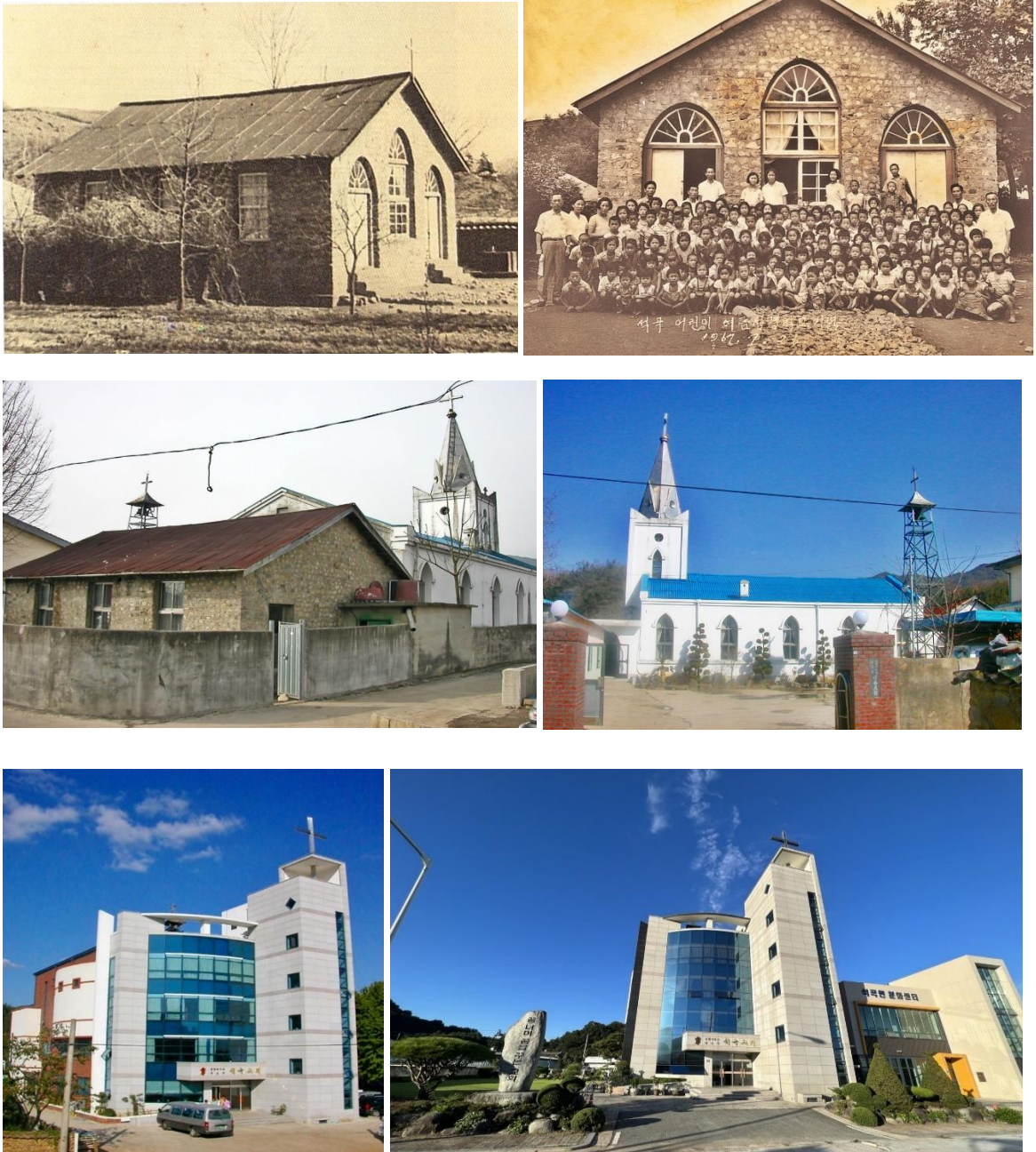
<그림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6회 회의록>



회차	날짜	장소	주요내용
1회	1908.10.15	서울	초대 총회
2회	1909.10.15	서울	2차 총회
3회	1910.10.15	서울	3차 총회
4회	1911.10.15	서울	4차 총회
5회	1912.10.15	서울	5차 총회
6회	1913.10.15	서울	6차 총회
7회	1914.10.15	서울	7차 총회
8회	1915.10.15	서울	8차 총회
9회	1916.10.15	서울	9차 총회
10회	1917.10.15	서울	10차 총회
11회	1918.10.15	서울	11차 총회
12회	1919.10.15	서울	12차 총회
13회	1920.10.15	서울	13차 총회
14회	1921.10.15	서울	14차 총회
15회	1922.10.15	서울	15차 총회
16회	1923.10.15	서울	16차 총회

⁵⁵ 김호욱, 『석곡교회 110년사』 (서울: 꿈과비전, 2018), 24.

1928년 건축된 석축 성전 1995년 개축하였고 2005년 새성전 건축으로 인해 역사에 묻히게 되었다. <그림3. 성전건축 시대적 변화모습>



성전 변천 모습을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회는 시대와 함께 발 맞추면서도 지역과 함께 한다. 외부적으로는, 지역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써왔으며, 내부적으로는 믿음의 다음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다음세대들에게 석곡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지역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석곡교회가 EPIC적인 요소들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적인 기능들이 잘 기능하고 드러나서, 신앙의 다음세대들이 교회에 세워져 나아갔으면 하기 때문이다.

석곡교회는 1917년에 성립되었는데 청룡교회(공북교회)가 1922년에 석곡으로 이전하면서 석곡교회와 합병하게 되면서, 교회 명칭은 석곡교회라 했다. 청룡교회는 “순천군 청용, 석곡 양당회의 합병청원은 다 허한다.”⁵⁶고 결정한 후부터 정식으로 합병되었으나 완전하게 합병이 이루어진 것은 1928년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석곡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완료한 것이 1928년이며, 그 전까지는 김성규 장로가 청룡교회 장로 자격으로 순천노회에 참석했으나, 1928년부터는 석곡교회 장로 자격으로 순천노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석곡교회는 미국 남장로교 출신 변요한 선교사가 1913년 순천에 부임한 후 한태원 조사와 함께 변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김성규 장로가 시무하는 청룡교회를 돌아보며 전도하던 중 1917년 석곡면 석곡리 석곡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신자는 송완용, 김순관, 이윤명, 이경철 등이었다. 변요한 선교사는 한태원 조사로 하여금 석곡교회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한태원 조사는 1920년 3월 14일 장로로 장립함으로써 석곡교회 최초 장로가 되었다.

김성규장로는 청룡교회에서 1917년 장로로 장립해 시무하고 있다가 1922년 청룡교회를 석곡교회와 합병을 추진했고, 전남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 합병했다.⁵⁷

본 교회 담임목회자를 보면 1938년부터 1946년까지 담임목회자가 없는 것을 알

⁵⁶ 백낙준,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권』(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68), 307.

⁵⁷ 김호욱, 『석곡교회 110년사』(서울: 꿈과비전, 2018), 123.

수 있다. 이때는 일제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신사참배를 더욱 강하게 강요하였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예배당의 타종이나 첩로 된 정문 등을 모두 빼앗아 갈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1938년부터 해방 후 1946년까지 교회 문을 폐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47년 경 교회를 복구한 것이다. 본교회가 1938년 교회 문을 닫고, 1947년 교회를 복구 사료는 아직 찾지 못했으나 교회 문을 닫았다가 해방 후 다시 문을 연 교회들이 다수 있다. 예장 통합교단 순천노회 소속의 광양 태인교회와 예장 합동교단 전남노회 소속(현, 동광주노회 소속)의 소태리교회(현, 광주지원교회)가 좋은 예가 된다. 1911년 시작된 태인교회는 1943년에 문을 닫았다가 1947년에 다시 문을 열었고, 1927년 시작된 소태리교회는 1940년경 교회를 폐쇄했다가 1947년 복구를 추진하였다.⁵⁸

석곡교회 비전과 사역

지역적으로 시골에 위치한 교회이지만,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전파에 힘썼던 사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⁵⁹ 교회는 연말이 되면 다음해 목회계획안을 만들어 1월이 되면 교회 조직 및 목회 계획표를 나누고, 일 년 동안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면서 이끌어 갈 것인지 담임 목회자는 제시하였다.

교회는 연말이 되면 다음해 목회 계획안을 만들어 1월이 되면 교회 조직 및 목회 계획표를 나누고 일 년 동안 본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면서 이끌어 갈 것인지 제시하였다. 목회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표3. 교회조직 및 목회계획표>

⁵⁸ Ibid, 127.

⁵⁹ Ibid, 282-312.

2024년도 목회 계획안

표어: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평화 가정의 웃음이 넘치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2:46-47)

★목회중점사역★

‘교회의 기능과 사역의 재점화를 위해 준비하는 한 해’

2024년도 정책목표

- 1) 교회 5대 본질사역(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의 재점화
- 2) 중보사역의 활성화(중보기도대, 나눔과 섬김)
- 3) 신앙의 다음세대 세우기 환경구축(다음세대 교회학교 활성화)

2024년도 교회 각 부서장 임명

2024년 정책목표를 위한 실천사항

1. 예배

예배형식변경

절기예배 활성화(어린이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예배)

특별기도회 활성화

헌신예배: 분림개척한 4교회 강단교류 및 협력

2. 교육

교육부서 담당 목회자 세움(아동부)

사순절 기간 성경대학운영

제직교육 및 구역장 훈련

중보기도대 운영

새가족등록 교육 및 훈련

아버지학교 지원

3. 선교

관계전도의 체계화(추수감사주일을 초청주일로 문화축제)

국내선교: 노회지원, 민들레교회지원

해외선교: 후원 선교정책 마련 및 후원선교사 발굴

성서신학원 이사후원

4. 전도

신앙생활 쉬고 있는 자녀들 가정방문 축복의 순례 계획

붕어빵 전도실시(12-1월중)

5. 봉사 및 섬김

지역사회 섬김계획 수립

6월 나라사랑의 달- 관내 경찰관, 소방관 격려

경로식당 운영, 반찬봉사

6. 교제

구역모임 활성화를 위한 년 2회 구역식사 지원

전교인 야유회를 5월 1일 실시

직분자 수양회 8월중 실시

부서별 나들이

년2회 돌실시네마 잔디밭 영화관람

문화센터 활용 8월 아이스크림 봉사

7. 교회시설보수

8. 기타 정책 토의안

교회는 이와 같은 계획안을 세웠으며, 교회내 여러 사역팀과 리더들-찬양대와 교회 학교 교사, 서리집사, 교구장 및 구역장을 임명하였다.

1월과 2월에는 교인들 신앙훈련 및 제직신앙훈련이 있었으며, 헌신예배는 한 달에 한번씩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드렸다.

전도와 선교 사역

전도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회 주변과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1년에 한 차례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 전도에 열심이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전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초청해 집회를 함으로써, 주님의 지상사명인 복음전도와 선교를 결단 할 뿐 아니라, 선교사역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고자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성도의 교제와 양육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아름답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년 가정의 달이 있는 5월중 주일을 산상예배로 정하여 전교인이 함께 야외 나들이를 하였다. 하나님을 지으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자연과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3년에는 대형버스 2대를 이용,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음식과 경비는 교회에서 준비하고, 성지순례를 통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신앙인들의 믿음을 보며 개인의 영적성장과 신앙을 고취하는 계기를 가졌다. 영광 염산교회, 야월교회 순교기념관, 신안 증도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 등 국내의 선교지를 발굴 탐방하여 성도들간의 교제에 더욱 힘쓰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그림4. 전교인 성지순례 모습>



바나바 사역

바나바 사역은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양육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전한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바울을 선뜻 사도들이 믿어주지 않았을 때에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력자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모델로 삼아 새가족 정착사역, 중보사역, 변화와 만남사역을 하게 되었다. 바나바 사역을 통해 새신자와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할 관계를 맺어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였다.

사랑의 동산 참여

사랑의 동산은 영성훈련으로 2박3일간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비전, 경건과 영성생활의 이해로, 2000년 사랑의 동산 9기를 시작으로 영성훈련 과정을 제직들이 먼저 시작했다. 당회에서는 향존직들이 의무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의 후원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았다. 교단총회 훈련원운영위원회는 2017년 11월 10일 사랑의 동산 훈련원과 MOU협약을 맺었으며, 사랑의 동산은 전국 6개 권역에서 25년동안 5만 4,000여명의 평신도와 5,000여명의 목회자들을 교육해 한국교회 영성 훈련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알파코스 전도양육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남긴 말은 2가지로 요약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보여 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젊은이들의 요구는 레너드 스윗 박사의 현재 교회에 대한 에픽연구를 보면 당연한 귀결로 보여 진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민하던 찰스 만함 신부는 믿지 않는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의문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현대인은 설득당하기 보다는 자기가 가진 의문이 해소 되었을때 모임 속에 머문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에서는 2007년부터 훈련 받기 시작해,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개편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교회가 시골지역이라는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아 함께 했다.

성경읽기와 필사

2012년 6월 유영술 성도가 성경 전체쓰기를 완성하여 교회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경을 읽기도 쉽지 않은 상황하에서 성경 전체를 직접 필사한다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역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루에 몇 장씩 읽는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온 후 교회에서는 성경읽기와 쓰기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해 많은 성도들이 성경 필사를 마쳤고, 현재 진행중인 성도도 많이 있다.

2. 에픽과 함께하는 교회 프로그램 소개

A. 경험적 교회

예배

본인은 2022년에 석곡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왔다. 100년이 넘는 교회의 예배는 오랜 시간 다듬어져온 형태와 모습으로, 전통적 장로교회의 예배로 진행되고 있었다. 경험과 체험, 참여, 연결의 의미가 있는 EPIC적 요소들을 예배 가운데 나타내고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 동적 움직임이 있는 예배, 등을 계획하고 모색하게 되었다.

크게 기독교적 전통과 예전을 따라서, 절기에 맞춘 예배를 계획 하였는데,

전반기에는 사순절을, 후반기에는 감사절을 중심으로 특별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참여하는 기도회를 가짐으로써, 십자가에 담긴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활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강단을 장식하고, 찬양대는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해 예배에 참여했다.

사순절기간동안 세례교육을 받은 새신자들이 이 기쁨의 절기에 세례를 경험함으로써 성도들이 다시 한번 거듭남의 죄 씻음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며 예배를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계획하고 드리게 되었다.

<표4. 부활주일에배순서>

부활주일 콘터			
시 간	순 서	준비사항	비 고
11:00 - 11:01(1분)	예배 부름/ 입례송	인도자	찬양대
11:01 - 11:04(3분)	찬송가64장	인도자	방송팀
11:04 - 11:05(1분)	신앙고백	인도자	방송팀
11:05 - 11:06(1분)	교독문(부활주일)	인도자	방송팀
11:06 - 11:10(4분)	찬송가171장(하나님의 독생자)	인도자	방송팀
11:10 - 11:14(4분)	대표기도	○○○장로	방송팀
11:14 - 11:15(1분)	성경봉독	인도자	방송팀
11:15 - 11:27(12분)	부활주일 칸타타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대
11:27 - 11:50(23분)	말씀 선포	인도자	방송팀
11:50 - 11:53(3분)	세례식/ 당신은 소중한 사람	성수 사권촬영	장로님 ○○○
11:53 - 11:56(3분)	봉헌찬양(찬송가 160장)	인도자	방송팀
11:56 - 11:59(3분)	교회소식	말씀이	장로님
11:59 - 12:00(1분)	축 도	○○○ 원로목사님	방송팀
	화답송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대

부활절예배 준비 사항: 강단장식- ○○○ 권사

<표5. 어린이주일 예배순서>

어린이 주일 예배		
		2023.05.07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전 11:00		○○○목사
경배와찬양	찬 양 팀
예배부름	인 도 자
찬 송	찬송가 15장	다 함 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교 독 문	96. 어린이주일	다 함 께
찬 송	찬송가 564장	다 함 께
기 도	○○○(중등부)
성경봉독	마가복음 10:13-16	○○○(아동부)
특 송	1. 세상 모든 어린이는 2.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아동부,중고등부
말씀선포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아이	○○○ 목사
봉 헌		
교회소식	아동부 대표 선물증정	○○○어린이
결단찬송		
축 도	○○○ 목사

5월에는 가정의 달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함께 하는 전 세대 통합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어린이 주일에는 아동부 중심으로, 아버지 주일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이 세대간의 분리가 아닌 전 세대가 함께 하는 경험을 갖게 했다.

B. 참여적 교회

지역사회를 향한 헌신과 나눔 사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이웃으로 다가서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웃과 함께 서기 위한 일들을 감당해 왔다. 1996년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입당소식을 듣고는 건축보조금과 입당축하금을 지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교회에 화재가 나서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화재 위로금을 지급하여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여름에 많은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과 수해지역 교회를 도왔으며, 주일 밤 예배 시간에 목적헌금을 해서 방송국에 보내었다. 본 교회 출신 목회자와 시무했던 분들과 연결의 고리를 이어갔으며, 그분들의 어려운 소식이 들려올때마다 교회는 힘을 다해 도움을 주었다. 2002년엔 결식아동돕기 찬양의 밤을 통해 곡성군내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 행사를 시작해 지역 주민과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아진 수익금 전액은 곡성군내 결식아동들을 돕는데 다 사용되었다. 이 일은 교회뿐 아니라 지역에 좋은 소식과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청년들이 앞장서서 헌신함으로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서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부터는 밀알심장재단과 함께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콘서트를 교회에서 드려왔다. 2013년부터는 기아대책 기구에서 실시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회학교 부서별로는 월드비전을 통한 세계 각지의 어린아이들을 돕기위해 힘쓰고 있다.

2008년부터 제2여전도회에서 반찬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 달에 두차례 지역내 연로하신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발굴하여 반찬을 배달하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은 20여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42명의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이면, 여전도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반찬을 만들어 정성껏 준비한 용기에 담아 배달함으로써 지역의 소자들을 섬기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 <그림5. 반찬봉사 모습>



2012년에 시작된 붕어빵 전도 및 봉사는 교회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석곡면내 15개 이상의 마을회관과 노인쉼터, 관내 노인요양시설까지 방문하여 붕어빵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내 면사무소나 농협등 행사가 있을시, 함께 붕어빵 섬김을 통해 교회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모습을 작은 물고기로 나타내려 하고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석곡면 마을회관마다 붕어빵을 기다리며 먼저 언제 오는지 물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시골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어르신들이 주로 모여계신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이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념하고 함께 체험하며 참여하는 모습이다.

<그림6. 붕어빵진도와 섬김의 모습>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많아지면서, 교회에서도 2008년 당회를 열고, 복지를 통한 지역사회 섬김과 참여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재가복지 요양기관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당회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는 석곡사회복지센터 재가복지 방문요양을 시작하였다. 이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지역 복지단체들과의 불편한 관계등 여러 이유로 2011년 7월 해당 복지센터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경로식당 운영

교회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다가, 순천노회 교회성장운동을 펼치고 있는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에서 해오던 경로식당 사업이 운영상 어려움에 처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가 지역사회 섬김의 일환으로 이 사역을 이어받게 되었다. 경로식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곡성군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요즘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운동과 영양 그리고 교제를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다. 경로식당의 설립목적은 “복음선교 활동과 지역사회의 공익추구”이다. 현재는 28명의 등록된 어르신들과 면사무소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형편상 외면할 수 없는 8분의 어르신들의 점심을 책임지고 있다. 다음은 교회가 운영하는 경로식당 식단표이다. 이와 같이 교회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교회의 지역사회 참여와 이미지는 밝아졌다. 경로식당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 감사하다.

<표6. 경로식당 식단표>

2023년 12월						석곡교회 경로식당
급식일		급식인원수			신종사자(명)	메뉴
일	요일	당일	누계	확인자(인)		
	월					
	화					
	수					
	목					
1	금				6	밥, 닭장토란국, 돼지고기편육, 무나물, 찜장, 상추, 김치, 커피
4	월				6	밥, 갈치조림, 콩나물 김치국, 김장김치, 과자
5	화				6	밥, 홍합국, 조기구이, 무생채나물, 배추나물, 카스타드
6	수				6	밥, 시래기된장국, 갈치구이, 단무지무침, 김치, 쌀과자, 커피
7	목				6	밥, 미역국, 낫지볶음, 시금치나물, 무나물, 커피
8	금				6	찰밥, 컵라면, 과자, 요구르트
11	월				6	밥, 시래기된장국, 고등어구이, 배추나물, 무생채, 커피
12	화				6	밥, 소고기토란국, 시금치나물, 조기구이, 김치
13	수				6	밥, 시래기된장국, 돼지고기편육, 김치, 커피
14	목				6	밥, 북어두부계란국, 콩나물무침, 메추리알조림, 브로ccoli무침, 카스타드
15	금				6	밥, 콩나물국, 브로ccoli볶음, 버섯나물, 김치
18	월				6	밥, 닭도리탕, 김치볶음, 잡채, 숙것나물, 오물레
19	화				6	밥, 시래기들깨된장국, 배추나물, 호박나물, 김치, 커피
20	수				6	밥, 바지락미역국, 시금치나물, 갈치구이, 김치, 카스타드
21	목				6	동지갈죽, 김치
22	금				6	찰밥, 빵, 라면, 꿀, 카스타드
25	월				6	성탄절
26	화				6	밥, 시래기된장국, 조기구이, 토란소고기조림, 메추리알과일샐러드, 요구르트
27	수				6	밥, 멸치김치국, 파래무무침, 고등어무조림, 시금치나물, 쌀과자
28	목				6	밥, 냉이시래기된장국, 버섯볶음, 콩나물무침, 브로ccoli두부무침, 커피
29	금				6	찰밥, 컵라면, 꿀, 과자, 식혜

C. 이미지를 보여주는 교회

레너드 스위트가 그의 책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를 통해 스타벅스 브랜드의 독특한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심어놓고, 그것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켜, 충성된 고객층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는 이미지와 은유로 교회의 본질적 모습과 가치를 표현 할수 있고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 스타벅스의 녹색로고는 “녹색은 녹색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법이다.⁶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로고, 이미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뤘은 시편23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푸른 풀밭과 설만한 물가 같은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주보색상, 교회의 외부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 마당에 깔린 잔디밭은 전임 목사님과 교우들의 부단한 노력과 투쟁의 승리이다. 잔디밭은 정말로 손이 많이 간다. 매일 매일이 잡초와의 전쟁이다. 어떤 성도들은 끝나지 않는 잡초와의 전쟁에 진절머리가 나셨는지, 콘크리트로 타설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마당이 잔디밭으로 덮혀있을 때 사람들에게 주는 시각 효과와 편안함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 교회에 실제 푸른 풀밭이 있어 누구나 편안함을 느끼며, 잔디밭은 아이들의 훌륭한 놀이터일 뿐 아니라, 격무에 지친 지역의 비신자들에게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안식처를 풍성하게 제공한다.

<그림7. 교회앞 마당 잔디밭 모습, 야외영화관람>

⁶⁰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45.



교회 앞마당에 잔디밭은 아이들이 자연스레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교인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의 주민들도 교회를 말할 때, 잔디밭을 빼지 않고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교회 주보 이미지도 푸른 풀밭을 연상케 하기 위해 녹색의 이미지로 교회 전체적인 이미지와 통일 하였다.

<그림8. 교회주보색상: 녹색>

3대사제비전 CHURCH VISION
영광주교 | 비베레 | 오순절시대

성공교회 37558 | 2층 주일교당 | 44곡면 석리6길 7
Tel (061) 362-9101 | Fax (061) 363-1034

원로목사 | 위임목사
진순중 | 서홍오

WORSHIP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본문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예배위원

온라인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은 교회에 오셔서 헌금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한입니다.
입금계좌 | 농협 000506-51-048528 | 성곡교회
성료계좌 | 농협 351-0296-9977-73 | 새성교회
 ※ 현금 입금시 현금지, 구역, 현금종류(주말,심일초,경사) 예) 홍길동1주일

주일예배

찬양	양
예배의 무릎	
찬양 송	
신앙 고백	
교독 분	
찬양 송	
대표 기도	
성경봉독	
찬양	
말씀	
봉헌	
교회소식	
결단찬송	
축도	
회말송	

주일예배

찬양

양

예배의 무릎

찬양 송

신앙 고백

교독 분

찬양 송

대표 기도

성경봉독

찬양

말씀

봉헌

교회소식

결단찬송

축도

회말송

공인인증

공인인증
공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

간양예배
주일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분당 1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공화연혁 1층

Welcome Home
성곡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D. 연결적인 교회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정신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연결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석곡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통합적 복지제공을 위한 연결점이 있다. 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문화체험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의 누림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문화센터 내 북카페를 운영하여 평상시에도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센터 건립

현대인들의 생활이 안정되어가고, 여가생활에 관심이 높아지던 때에, 교회에서는 지역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체험을 충족시켜줄 필요를 느끼고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표7.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회의록>

안건

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을 위한 모임

본 교회 당회원의 전문성을 띤 성도 포함하기로 하다.

손○○ 최○○ 이○○ 이○○ 전○○ 국○○ 이○○ 이상 후일 모임은 6달 내에 모이기로 당회원들 찬성으로 회를 마치니 오후 3시 45분이었다.⁶¹

결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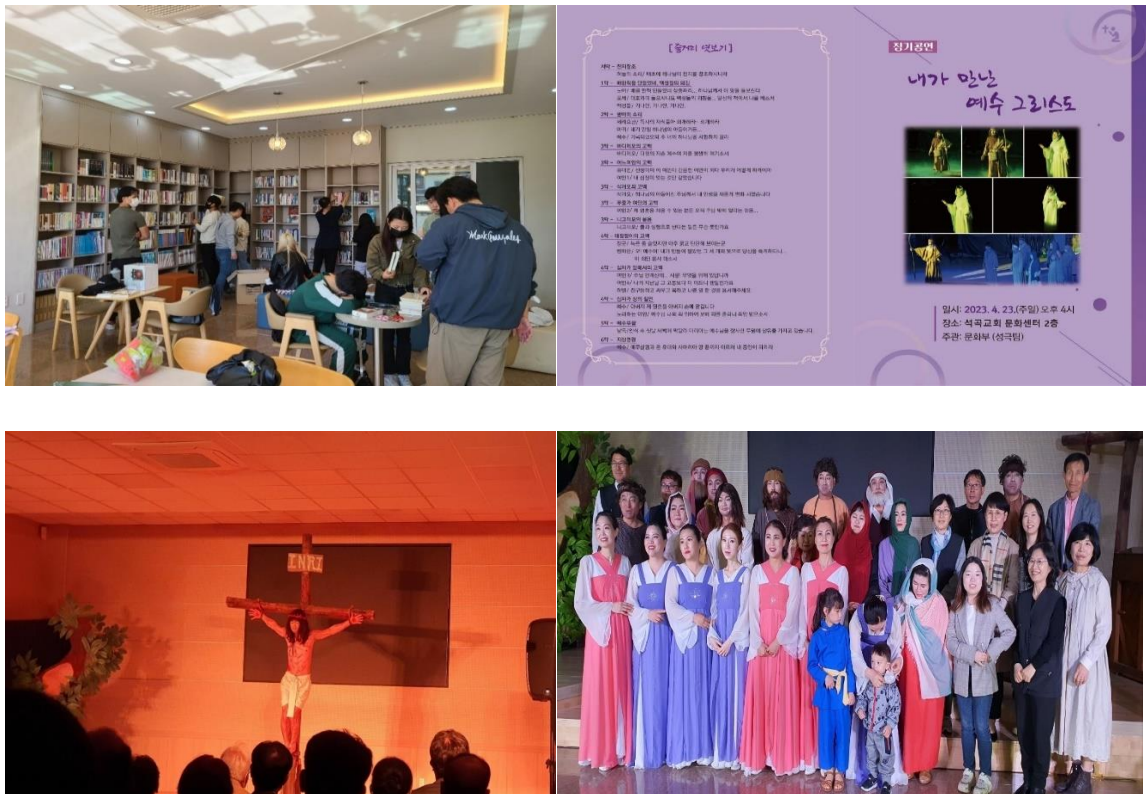
문화센터 건축부지 기부체납 <증여>건

⁶¹ 김호욱, 『석곡교회 110년사』 (서울: 꿈과비전, 2018), 304.

당회장이 문화센터 건축시 교회부지 일부를 곡성군에 기부체납 해야 문화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필요성을 설명 후 교회 부지 지번 432. 면적 435m²를 곡성군에 기부체납<증여>하기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 없이 가결하다.⁶²

지역민을 위한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농촌지역의 사람들에게 꼭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열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한차원 높였으며 2018년 10월에 준공한 이후 각종 회의와 행사, 음악반, 캘러그래피반, 미술반, 수지침반, 등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열어 지역민의 배움과 즐거움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1층에는 북카페를 열어, 평상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9. 문화센터 활용모습: 북카페, 문화공연, 아이들 놀이공간, 전시회>



⁶² Ibid, 305.



북카페 공간은 다양한 주민들이 찾는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또한 문화센터 본래의 취지에 맞춰, 도시의 규모있는 교회와 협력하여 문화공연을 계획하고, 주위의 이웃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 연극, 음악회, 영화 등을 체험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을 차를 타고 도시로 이동해야 하기에 70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문화활동은 요원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문화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과 활동을 연결하고 있다.

늘 개방된 문화센터는 평상시에도 주위의 아이들이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교회라는 공간에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문화 안으로 젖어 들으며 추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예배로의 연결에 있어서 훨씬더 수월한 부분이 있음을 안다.

10주-12주에 걸친 문화교실을 수강한 후에 배움의 결과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기엔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강좌를 맡으신 강사 선생님과 학생들과

대화한 후에 배움의 결과들을 문화센터에 전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실제로 자신들의 결과물들을 전시한 모습이다. 이로써 수강생들의 가족들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찾게 되었으며, 불신자들이 교회와 문화센터를 다녀가는 연결점이 되었다.

석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에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역자원의 개발과 연계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에 민간위원장으로 섬김으로써 지역 복지 방향과 업무 협의를 통해 교회가 지역의 어려움을 안고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림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자료>

**2024년 1분기
석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자료**

곡성군
GOKSEONG COUNTY
석곡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2024년 1분기
석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계획**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역자원의 개발과 연계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개요

- 일 시 : 2024. 2. 22.(목) 15:00
- 장 소 : 민회의실 (2층)
- 석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현황

연번	구분	직위	성명	비고
			13명	
1	공동위원장	석곡면장	박도원(남)	당연직
2	민간위원장	석곡교회 목사	시종우(남)	위촉직
3	위원	석곡파출소장	오우식(남)	위촉직
4	위원	석곡면생활개선회장	배연숙(여)	위촉직
5	위원	석곡면주민자치회장	박경환(남)	위촉직
6	위원	석곡지역아동센터장	박미향(여)	위촉직
7	위원	석곡면이장단장	양해주(남)	위촉직
8	위원	석곡면세마을부녀회장	김정례(여)	위촉직
9	위원	석곡농협	김경훈(남)	위촉직
10	위원	석곡면생활체육회장	박문규(남)	위촉직
11	위원	석곡면주민자치위원	양해영(남)	위촉직
12	위원	마을요양원장	김도영(남)	위촉직
13	위원	석곡체육관장	오창용(남)	위촉직
14	위원	복지팀장	최철호(남)	당연직
15	위원	보건지소운영팀장	신현숙(여)	당연직
	간사	맞춤형복지팀장	조문정(여)	
	서기	맞춤형복지팀원	전경(여)	

심의 안건

- 석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 계획 보고
- 석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마을복지계획) 의결
- 이웃이 함께하는 「석곡에서 ON DO시탁」 지원 사업 추진
- 'My 구미(口味)' 지원사업(계절별로 대상자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 제공)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볼 때에, 교회와 민간기구,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돌아본다는 것은 교회가 지역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교회 교회학교 연합수련회

지역 교회와의 연결 및 연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서 다음세대의 한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곡성군은 지방소멸위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바로 턱 밑에 와있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 곡성군내 통합교단 교회의 숫자는 총 28개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2024년 현재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는 2곳에 불과하다. 교사들의 연령은 높아져가고,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학교 운영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신앙의 집중적인 훈련과 교육을 위한 여름수련회와 겨울수련회를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진행함으로 지역교회와 연합하고 연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11. 곡성군 아동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모습>

아동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 청년 연합 수련회



3. EPIC 프로그램 반응과 평가

EPIC 프로그램을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이라는 4가지의 영역을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담아 내기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지금 지역적 환경과 시대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교회 미래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지금의 교회들이 처한 현실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들 전망한다. 통계자료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인구절벽과 도시소멸에 대한 걱정도 크다. 우려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시대 시대마다 새롭게 변화되었고, 어두운 현실의 출구가 되어 왔다. 본 연구가 어려운 상황과 지역적 한계를 가진 교회들이 현실을 마주하며 그래도 교회 안에 답이 있음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주길 바란다. 다가오는, 다음세대들을 향한 EPIC 프로그램의 맛과 향을 즐기면서 새로워지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래표와 같은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직분자들 약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예배변화를 통한 경험과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은 교회학교 교사들과 찬양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미지와 연결적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등 직분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으로 교회가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세상적인 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비신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교회의 사역들이 발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한계를 살펴보고, 교회안에 다음세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면서, 레너스 스위트의 에픽적 요소들을 교회에 적용해보면서, 교회가 지나온 변천사를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교회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그들 속으로 참여하고자
 몸부림 쳤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지역과 연결되고, 지역 교회와 연결되기
 위해 했었던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 설문지를 통해 반응과 평가를
 살펴보았으며 평가를 실었다.

<표8.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EPIC적 요소에 대한 평가 설문지>

살롬~

석곡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면서, 현재 교회에서 하고있는 사역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지에 참여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남, 여 / 연령: 세

순번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절기예배 가운데에 영적인 감동이 있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2	우리교회가 지역사회에 보여지는 녹색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3	교회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경로식당이 지역에 어려운 현실에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역들이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와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5	교회학교 사역들을 볼때, 지역의 어려운 교회와 충분히 연합하고, 연결된 사역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센터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교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7	교회 잔디밭은 지역 주민들에게나, 교우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한 복지사역들이 지역과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9	교회 주보를 볼때마다, 교회 이미지 가운데 삶과 평안적 요소가 쉽게 떠오르는가?	①	②	③	④	⑤
10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의 변화가 다음세대들에게 신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예배 변화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평가를 말한다.

절기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특히 30-40대 가정들이 예배가 마친 후에 나눔을 가지면서, 했던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집중도와 사모함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해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고 했다. 물론,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로 조금 시끄럽고, 분주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다음세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유산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 점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000 안수집사

반찬봉사, 붕어빵 섬김, 경로식당에 대한 인터뷰를 교회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그 평가를 말한다.

반찬봉사는 오랫동안 여전도회원들의 헌신으로 이어져 왔다.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벌써 60대 70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몸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으신다. 사회가 많이 윤택해지고,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반찬이 그다지 필요치 않다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에겐 한 끼 식사가 소중한 분들이 계신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

000 권사

붕어빵 전도와 섬김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붕어빵 2개에 천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혹자는 붕어빵을 굽는 봉사자들이 10년이 넘는 봉사로, 웬만한 붕어빵 장사보다 더 잘 굽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갓 구워진 붕어빵을 소쿠리에 담아 마을 회관 이곳 저곳을 누비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고무적이다. 이제는 모두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으신 어르신 들이다. 이 일을 통해, 인생과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000 여전도회 회장

잔디밭과 교회 주보에 대한 인터뷰를 석곡면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평가를 말한다.

교회에 잔디밭이 있다는 것은 큰 유익이다. 우리 직원들이 종종 일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는데, 잔디밭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한다. 어쩌면 우리 눈의 즐거움을 위해 교회 성도님들의 손과 발이 고생을 하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계신다. 잔디밭이 주는 푸르름의 색깔은 우리 마음을 평온케 해준다.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교회를 오가며, 잔디밭에 대해서 한 마디씩은 꼭 하신다. 그 만큼 잔디밭은 석곡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있다. 우리의 수고로움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소통의 창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석곡면사무소 000 직원

지역민을 위한 문화센터에 대한 인터뷰를 교회 성도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평가를 신는다.

문화센터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나룻터다.

여름 한 달 지역민을 위해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데, 한 낮 더위를 피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쉬러 오는 발걸음이 이어진다. 평소에는 1층 북카페에 전시되어 있는 책을 보러 오기도 하고, 따뜻한 커피 한잔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역민을 위한 만남의 공간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공간이다. 1층 소강당에서는 캘리그라피, 수지침, 2층 대강당에서는 드럼, 탁구교실, 문화공연으로 지역민이 항상 드나든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문화센터는 아이들의 쉼터이자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모습은 시골이라서 더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 앞으로도 계층의 구분없이 지역민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000 성도

제 V 장

결 론

A.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교회가 처한 현실과 교회의 미래인 우리의 다음세대가 겪게 될 시대적인 움직임과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바를 준비하고자 한다. 다음세대와 교회가 처한 시대적 요청과 변화는 크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부정할 수 없는 변화의 트렌드를 부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갈라파고스화(Galapagos Syndrome)⁶³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예측도 해본다. 이 시대의 예배와 목회, 설교와 행정, 전도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대의 변화 트렌드와 문화의 소통방식에 대한 구체적 특징을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의 문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명한 지표들은 교회가 처한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현실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지방소멸론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 특히 교단에서

⁶³ 갈라파고스화란 말은 “기술이나 서비스등이 국제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세계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일본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가 일본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발전하게 됨으로써 세계 시장의 욕구와 국제 표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일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는 고립됨으로써 세계 시장 진출이 막히고 나아가 내수 시장마저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수집한 10년간의 데이터는 명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의 에픽이론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크다. 교회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교훈적이나, 교리적인 가치보다 실제적인 이미지를 통해 풍성한 성경 이야기들을 사용해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됨으로서 회복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자아와의 관계회복, 타인과의 관계회복, 창조세계와의 관계회복이다. 이를 바탕으로 석곡교회에서 이제까지 해 왔던 교회 사역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 예배당의 변화속에서는 지역의 영적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시대마다 믿음의 다음세대에게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지역의 어려움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모습으로 경로식당과 반찬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회가 보여지는 이미지를 위해서도 잔디밭, 교회환경과 주보를 통해 교회가 푸른 풀밭으로 설만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지역교회와 연결점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과 그 활용방안을 적용하면서, 다가올 시대의 변화를 그란데 열정으로 커피 한잔에 담아서 세상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EPIC 인생의 따뜻함과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 연구하고 해 보았다.

B. 연구의 결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역과 교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음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작년(2023년) 출산한 신생아수는 가히 충격적이다. 어느 시대에나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왔지만, 교회는 도전 앞에서 뒤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였다. 우리는 그 변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음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다. 미래를 책임질 신앙의 다음세대들에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 것이기에 본 논문에서 살펴본 레너드 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본 논문을 마치며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에픽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세대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하며, 그들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서 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배와 교육, 훈련 등등 변화에 적극적인 세대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앙적인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다음세대는 자신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복음과 신앙에 더 깊이 함께 하길 원한다. 진리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명료하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말이 아닌, 행동의 참여를 원하며, 1차원적 삶이 아닌 3차원적인 삶을 원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 다음세대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보여지는 이미지다. 빛과 어둠, 듣기만 해도,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하다. 다음세대는 이미지를 통해, 분명한 교회의 메시지를 이해한다. 앞으로 교회는 더 풍성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다음세대와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리라 생각된다. 교회는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이미지적 요소들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공동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특성이 다음세대들의 신앙교육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상과 교회, 비신자와 신자의 관계 속에서 연결점을 찾고, 그 연결점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추어지는 것이 교회의 몫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도 지난 과거엔 신앙의 다음세대였고, 그 시절에도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해준 신앙의 선배, 교회가 있었다. 이제는 우리에게 신앙의 다음세대들을 맡기셨다. 그들과 함께 그 부르심에 참여하며, 세상을 향한 그란데 복음을 보여줄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메말라 가는 세상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통로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며 본 연구를 마친다.

부록1. 교회 사역에 대한 간증문

백년 전 황무지 같던 이곳, 석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곳 석곡은 유난히 유교적인 풍습이 강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이곳을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우리 석곡교회가 지나온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동행을 경험하면서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는 앞으로도 다음세대에게도 역시나 분명한 미래요 소망임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 마음이 움츠러들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영혼들을 거둬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서 이 지역사회가 복된 소식들로 넘쳐나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000 장로

1907년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와 한 세기를 훌쩍 넘는 동안 함께하시고 섭리하셔서 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어두운 그늘에 싸여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시간을 돌이켜 보면 [유, 불, 선] 세력과 싸움이 있었고, 가문에서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10여 년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전이 폐쇄(1938~1946)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진리의 터전인 교회는 굳건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동고동락한 성도들의 따스한 손길들은 이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자긍심과 미래의 아름다운 비전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꿈너머 꿈을 꾸는 믿음의 공동체 석곡교회는 품은 꿈 그대로 성취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사랑으로 모두를 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사역 속에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2023년 석곡교회 원로목사 ○○○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 성경 말씀처럼 이름없이 빛도 없이 생명 바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해 본 자들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자원하는 마음과 구원 얻은 믿음이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성장해온 석곡교회를 바라 볼때마다, 우리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자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로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이끌어주어서 교회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 칭송 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2024년 000 집사

참고문헌

국내서적

-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10.
- 김현철, 조민철. 메타버스 교회학교. 서울: 꿈이 있는 미래, 2021.
- 김호욱. 석곡교회110년사. 서울: 꿈과비전, 2018.
- 백낙준.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권.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68.
- 선한용. 성어거스틴의 고백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이상훈외.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21.
- 조병호. 52과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02
- 최윤식. 2030 대담한 도전. 서울: 지식노마드, 2016.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외국서적

- Leonard Sweet. Soultsunami. MI: Zondervan, 2009.

번역서적

- 마스다 히로야/김정환 옮김. 『지방소멸』. 서울: 미래앤, 2015.
- Leonard Sweet/김영래 옮김.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2.
- Leonard Sweet/이지혜 옮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Lynne Lancaster & David Stillman/양유신 옮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서울: 더숲, 2010.

Timothy Keller/윤종석 옮김. 『인생질문』. 서울: 두란노서원, 2019.

학술논문

김도훈. “다음세대 신학-사회변화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와 신학의 과제.”

장신논단, Vol 39(2010), 146.

김동훈. “지방소멸 위기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함의.” 지역사회연구, 제30권 4호(2022), 129.

박승현. “지방소멸과 지방창생-재후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Vol 16(2017), 159.

신문. 인터넷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넘버스214,”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66/ [2024.1.9.

최종접속]

김영래, “창조적 변형, 레너드 스윗 칼럼3,” 한국기독교공보(2007)
<https://m.pckworld.com/article.php?aid=36580/> [2024. 2. 3. 최종접속]

日本創成會議, “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氣戦略”(일본: 일본창성회의, 2014),
<http://www.policycouncil.jp/pdf/prop03/prop03.pdf> [2024. 1. 20. 최종접속]

민보경, “지방소멸위기 대응방향,” (서울: Futures Brief, 제23-03호 2023),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4327> [2024. 2. 7. 최종접속]

김성주, “곡성군,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총력,” (서울: 프레스안 뉴스, 202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0515154280732> [2024. 2. 17. 최종접속]

통계청, “e-지방지표(지역별), 곡성군(월, 분기, 반기, 년 1970.01~2024.0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2024. 2. 15.

최종접속]

- 천민우,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농어촌 선교(1)” (서울: 가스펠투데이, 2023),
<https://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4> [2024. 1. 7. 최종접속]
- 교세현황, “최근 10년 교세통계 변동현황,”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2022),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1_05&wr_id=1 [2024. 2. 7. 최종접속]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ongoh Seo

Place and Date of Birth: Jeonnam, South Korea, October 09, 1976

Parent`s Names: Jaeyong Seo and Sangsoon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Yecheon High School 63, Gagok-gil, Yeosu-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4, 1994
Collegiate: Chosun University 146, Chosundae-gil, Dong-gu, Gwangju, Republic of Korea	B. S.	Feb 24, 2001
Graduate: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77, Jeju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M. Div	Feb 10, 2009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서종오

Signature

Jongoh Seo

Name typed

February 27, 2024

date